

【논 문】

## 13세기 고려 기록에 나타난 몽고와 그에 투영된 고려인

이 미 지\*

### Ⅰ 차 례 Ⅰ

- I. 서론
- II. 고려 기록에 나타난 몽고인과 그들의 풍습
- III. 몽고에 대한 기록에 투영된 고려, 고려인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역사 기록이 대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3세기 초 고려인의 눈에 비친 몽고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이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몽고의 관습과 행동 양식을 매우 낯설게 여긴 13세기 전반기 고려인들은 이들을 지칭할 때 禽獸, 오랑캐 등과 같은 폄칭을 사용하거나,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남기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고려가 불 때 몽고라는 집단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새로운 세력인데, 이들의 문화에 대해 고려가 선형적으로 취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건국 이후 몽고와 조우하기 전까지 고려가 속해 있었던 ‘세계’를 재구성 해 보았다. 13세기 초 몽고가 등장했던 때는 고려가 세워지고 송, 거란, 여진 등과 적정한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그에 따라 구성된 외교적 질서에 적응한 지 300여 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고려인들로서는 자신이 발을 딛고 서있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그 세계에 속해 있지 않던 몽고를 수용하는 방법은 새 집단인 몽고를 기존 질서에 속해 있지 않았던 외부자, 즉 오랑캐로 보는 방법뿐이었

다고 추정해 보았다.

이에 따라 몽고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고려인이 느낀 이질성은 야만의 속성으로 규정되었고, 따라서 양국의 초기 교섭 시기 고려 내부의 기록 속에는 몽고에 대한 폄칭과 부정적인 시각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렇듯 고려가 그 주변에 새롭게 등장한 몽고와 같은 외부 집단을 일단 오랑캐로 규정하여 그들의 이질성을 인정한 후 그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가는 방식은 전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고려의 특징적인 對外 적응 방식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주제어 : 對蒙 관계, 對蒙 인식, 오랑캐, 禽獸, 수저, 게르, 세계관, 고려의 외교 전략

---

## I. 서론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거울에 비춰보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대상화하여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전에 자각하지 못했던, 얼굴에 묻은 검불을 떼어내거나 흐트러진 차림새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서 史書는 종종 鑑이라는 글자를 제목에 포함한다. 과거의 일을 말 그대로 ‘거울삼아’ 현재의 상황에 필요한 교훈을 얻고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동양의 전통적 역사관이 투영된 표현이다. 이 역사관에 따르면 역사는 일종의 거울처럼 작용한다고 하겠다.

본고는 역사 기록이 대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3세기 초 고려인의 눈에 비친 몽고<sup>1)</sup>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이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려 한다. 13세기 전반기는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未知의 대상이었던 몽고와 첫 조우가 이루어지고, 그들과 여러 형태로 교섭을 시도하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 탐색하던 시기이다. 『고려사』,

---

1) 이 글에서는 13세기 고려인들이 바라본 蒙古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들을 蒙古[몽고]라고 지칭한다.

『고려사절요』, 고려시대 금석문 및 각종 문집 자료에는 고려인의 눈에 비친 몽고, 몽고인의 모습이 남아 있다. 이는 동시대인이 목격한 13세기 몽고인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몽고 제국 초기의 문헌 자료가 풍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이 기록들은 고려인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관찰한 ‘사실’과 고려인들의 몽고에 대한 일정한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관련 사료를 분석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1200년 대 초 몽고의 습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몽고라는 낯선 집단과 조우하게 된 고려인들의 반응 및 대응 과정도 어느 정도 복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몽고가 처음으로 고려의 주변에 등장했던 이 시기는 고려 내부적으로는 무신집권기로 분류되며, 崔忠獻이 집권한 이후 武臣執政이 私의 권력 기반을 토대로 公的 권력 체계를 장악하는데 성공하면서 그들의 집권 체제 역시 안정화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고려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나지만, 고려 외부에서는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몽골 고원에 산재해 있던 여러 부족이 테무진의 지도 하에 통합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고려인들은 국초부터 북방의 거란 및 여진과 교류하며 끊임없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러나 몽고의 발흥지인 몽골 고원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때문인지 13세기 이전 고려측 기록에서는 몽고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다. 1206년 테무진의 칸 즉위 사실 역시 당시 고려측 연대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려사』에 몽고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록은 1211년에 확인된다. 당시 금에 파견된 고려 사절 10여 명이 불의의 사고를 만나 사망하자 금에서 그 유골을 수습하여 보내준 사건이 있었다.<sup>2)</sup> 금측 통보에 따르면 이들은 몽고 병사의 활에 맞아 사망하였다. 피살자의

2) 『高麗史』卷21 世家21 熙宗 7年(1211) 五月 金遣完顏惟孚 來賀生辰 王遣將軍金良器回謝 良器至通州 遇蒙古兵 中矢而死 下節九人 亦遇害 金收骨以送.

신분이나 使命·피해 규모 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되지만, 고려는 이와 관련하여 몽고측에 항의를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로부터 채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몽고는 점차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고려의 서북 변경에 구체적 실체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몽고와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고려의 외교적 현안이 되었다.

몽고가 고려의 변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양국 관계에 일정한 질서가 정착되기까지 양국은 다양한 형태로 조우하였다. 초기에는 공동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 일종의 동맹을 형성하였으며[형제의 맹3], 이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몽고의 사신들이 고려를 왕래하던 중에 한 사신이 피살되면서 교류가 중단되었다. 이후 몽고와 고려는 공격과 응전을 거듭하는 敵對國이 되어 긴 전쟁을 겪게 되었고, 결국 양국이 특정한 외교 질서에 합의하는 데에는 약 40여 년이 소요되었다.<sup>4)</sup> 고려가 몽고의 피책봉국이 된 이후에도 양국 왕실은 혼인 관계로 연결되는 등 몽고는 고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외교 대상국이 되었다.

양국 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확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60여 년 동안 고려인들이 남긴 기록 속에는 몽고와 관련하여 상당히 흥미로운

3)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가 참조된다.

高柄翊, 1969,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1970,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丁善溶, 2002, 『趙沖의 對蒙交涉과 그 政治的 意味』, 『震檀學報』 93; 이개석, 2010, 「여몽형제맹약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대구사학』 101; 2013,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4) 고려-몽고 관계의 분기점과 관련하여서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다. 본고에서는 고려의 還都를 대몽항쟁기와 원간섭기의 분기점으로 본 윤용혁의 견해(윤용혁, 2011, 「대몽항쟁기 여몽 관계의 추이와 성격(1218~1270)」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해안, 87~89쪽)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여, 몽고와의 초기 교섭 시기를 환도 시점까지로 본다.

양국 간의 직접적인 전쟁이 중단되는 시점, 혹은 원종의 入朝 시기인 1259년(고종 46)을 양국 講和 시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李丙燾, 1961, 『韓國史』 中世篇, 乙酉文化社, 580쪽; 李益柱, 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26쪽.

김호동의 쿠빌라이의 즉위를 축하하는 원종의 서신에 포함된 臣屬 의사에 주목하여 1260년(원종 元)에 고려가 신속하였다고 보고 있다(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83~92쪽).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장에서는 13세기 초 낯선 몽고인을 목도한 고려인들이 남긴 기록을 토대로 하여 몽고가 아직 왕조 체제로 정착되기 이전 시기에 그들이 연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던 방식, 그들의 차림새, 군사 작전이나 외국 사행 시 몽고인들의 旅裝 및 동행, 그리고 고려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행동 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는 13세기 몽고 풍습의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외부인인 몽고에 대한 고려인의 관찰기에는 기록자의 자각 여부와 별도로 ‘高麗的’ 시각과 판단 기준이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인이 남긴 몽고에 대한 기록은 기록의 대상, 즉 객체인 몽고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기록 주체인 고려인들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정보를 전해 준다고 생각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몽고 관련 기록에서 확인되는 고려와 몽고의 ‘차이’를 확인하고, 고려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대상을 자신들의 인식 체계 속으로 수용하는 과정과 그것이 고려의 대외인식적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해 보겠다.

## Ⅱ. 고려 기록에 나타난 몽고인과 그들의 풍습

### 1. 몽고 軍陣에서의 연회

금 말기 여러 반란 세력 중 하나였던 ‘丹賊’, 즉 거란인들은 몽고의 투항 요구를 거부하고 국경을 넘어 고려의 江東城을 차지하고 3년 여 동안 고려의 서북 변경을 소란스럽게 하다가 1219년 정월, 고려와 몽고의 연합 공격으로 토벌되었다. 이 유례없는 양국의 합동 군사 작전이 수행되기 전날, 몽고 장수들은 작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고려 장수들에게 연회를 열어 주었다. 『고려사』 김취려전과 『고려사절요』, 이제현이 지은 김취려의 行軍記 등은 이 연회 장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A-1. (趙冲과 金就礪, 哈眞 등이)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마시며 음악을 연주하였다. 몽고의 풍속은 잘 드는 칼로 고기를 썰어 손님과 주인이 서로 먹여주는데 (칼날이) 왕복하는 것이 눈감쩍힐 틈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 군사 중 본래 용맹하기로 소문난 자도 (이 풍습을) 어려워하는 기색이었는데 취려와 충은 꿰어앉았다가 일어나며 받아 먹는 것을 매우 익숙하게 하니 합진 등이 매우 기뻐하였다.<sup>5)</sup>

위 사료에는 1219년 당시 몽고인들의 연회 풍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고려의 관찰에 따르면 몽고인들에게는 손님과 주인이 둘러 앉아 날카로운 칼로 고기를 잘라 빠른 속도로 서로 먹여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위 기록을 토대로 참석자 모두가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몽고식 천막[게르]에서 한 가운데에 불을 피워두고 그 위에서 고기를 굽다가 각 개인들이 소지한 칼로 고기를 썰어 먹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다. 당시에는 戰時였으므로 참석자들은 모두 몽고군의 대표적인 장수들이었을 것이며 이들이 모두 어떤 형태이건 간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232년 南宋 彭大雅와 徐霆이 1232년과 1235~1236년 두 차례에 걸쳐 몽고에 사행을 갔던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黑韃事略』에도 몽고인들의 칼에 대한 언급이 확인된다. 『흑달사략』에 따르면 몽고인들의 칼은 회교도들의 칼처럼 휘어진 형태의 環刀를 사용하였고, 칼은 활과 화살에 이어 몽고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였다고 한다.<sup>6)</sup> 강동성 연회에서도 환도가 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몽고인들이 칼을 사용하는데 익숙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위 책에서는 또한 당시 몽고인들의 식습관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었는데,

5)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6年(1219) 春正月 (趙冲과 金就礪, 哈眞 등이 : 인용자) 坐定置酒作樂 蒙古之俗 好以鋸刀刺肉 賓主相啗 往復不容營 我軍士素號勇者 莫不有難色 就礪與冲 跪起承迎 甚熟 哈眞等極歡; 『高麗史』 卷103 列傳16 金就礪; 『益齋亂稿』 卷6 記「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6) 『黑韃事略』 其軍器 有環刀 效回回樣 輕便而犀利 靶小而編 故運掉也易 … 其長技 弓矢爲第一 環刀次之.

몽고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 먼저 얇게 저며 먹어 본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먹였다고 한다.<sup>7)</sup> 고려측 기록에 나타나는 연회 장면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고려인들은 칼로 상대방에게 고기를 먹여주는 풍습을 매우 어려워하였지만 몽고인들에게 있어 칼이라는 도구는 전혀 다른 맥락의 도구였을 것이다.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전통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몽골 남성들은 현대에도 작은 칼을 휴대한다. 여성들이 기초적인 화장품 도구를 늘 가지고 다니다가 칼을 휴대하는 것은 남자로서 기본 몸가짐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실제로 칼은 유목을 기본으로 하는 몽골식 생활 풍습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다. 물건을 자르거나 구멍을 뚫을 수 있고 재료를 쪼개거나 다듬어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주요 식재료인 고기를 썰 수도 있으며 13세기에 고려인들이 목격한 바와 같이 필요할 때에는 젓가락을 대신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전장에서는 수저를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칼을 이용하여 식사하는 일이 몽고인들의 전장에서는 그다지 낯선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울러 무기가 될 수 있는 칼을 식사 도구로만 사용하여 고기를 서로 먹여주는 풍습은 상호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 2. 몽고의 게르(ger)

몽골식 천막인 게르도 고려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주지하다시피 게르는 몽골 유목 민족의 이동 생활에 최적화된 주거 시설이다. 고려는 이를 ‘모직물로 만든 오두막’이라는 의미인 毳廬로 표현하였다. 고려를 공격하던 몽고군의 원수 역시 군진에서 이 시설을 사용하였다.<sup>8)</sup>

7) 『黑韃事略』其食肉而不粒…牧而庖者以羊爲常 牛次之 非大宴會不刑馬 火燎者十九 鼎烹者十二 三 櫛而先食 然後食人.

8) 『高麗史』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十一月) 癸巳 北界分臺御史閣曠還奏 曠與兵馬判官員外郎崔桂年 承三軍指揮 往犒蒙兵 有一元帥 自稱權皇帝 名撒禮塔 坐毳廬 飾以錦繡 列婦人左右.

1260년에는 고려를 방문한 몽고 사신이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분노하며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었는데, 고려는 그들이 주둔했다가 떠나는 모습을 “卷坐席而去”라고 기록하였다.<sup>9)</sup>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앉았던 자리를 말아서 가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席’은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앉거나 눕기 위해 갈대 등으로 만들어 바닥에 까는 물건이라는 뜻이지만<sup>10)</sup> 몽고 사절이 일반적인 깔개 위에 앉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짐작건대 몽고인들이 사용하던 게르의 해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목조 부자재를 지그재그 형태로 연결하여 원기둥처럼 둥글게 펼쳐 설치하는 게르의 기본 구조는 약 삼십 분 정도면 해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분노한 몽고 사신이 주둔지를 정리하여 떠나는 광경을 목격한 고려인들이 게르의 신속한 해체와 간편한 행장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사진 1·2 참조).



[사진 1] 게르의 기본 구조(입구쪽)



[사진 2] 게르의 기본 구조(뒷쪽)

### 3. 몽고인들이 의생활

1200년대 전반기에 고려에 왕래한 몽고 사절단의 의복과 관련한 기록도 종종 눈에 띈다.

9) 『高麗史』卷25 世家25 元宗 元年(1260) (四月) 甲子 荊節·其多大等 怒贈遺不如意 卷坐席而去.  
1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2001, 『漢韓大辭典』卷4, 1043쪽.

- B-1. 고종 6년(1219) (정월) 신묘. 왕이 (포리대완 등 10인을) 大觀殿에서 불러 보았다. (포리대완 등은) 모두 털로 된 옷과 관을 쓰고 활과 화살을 찬 채로 곧바로 전에 오르더니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어 왕의 손을 잡고 건네주었다.<sup>11)</sup>
- B-2. 고종 18년(1231) (12월) 다음날. (몽고 사신이) 궐에 이르렀다. ... 몽고 사신은 털로 된 의관을 착용하고 활과 칼을 차고 있었다. 우리 조정에서 紫羅衫과 束帶를 주고 갈아입도록 하였는데 몽고 사신이 따르지 않고 겉옷만 착용하였다.<sup>12)</sup>

몽고 사절은 털로 된 옷과 冠을 착용한 채로 국왕을 알현하는 자리에 나타났다. 아울러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활과 화살, 활과 검 등 무장을 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B-2의 사례를 보면 고려가 몽고 사절에게 비단으로 만든 의복을 주고 털옷을 갈아입을 것을 요구했어도 겉옷만 겨우 걸쳤을 만큼 몽고인들은 털가죽으로 만든 의복을 고수하였다.

이처럼 13세기 몽고 의복의 주재료가 털가죽이었음을 재차 확인해 주는 사례가 하나 더 있다. 당시 고려를 오가던 몽고 사신 着古與가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몽고가 그 책임을 추궁하자 고려는 이것이 金 반군의 소행임을 항변하며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였음을 통지하였다. 해당 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3. 고종 18년(1231) (12월 경진). 몽고 사신에게 전달하여 황제에게 올린 표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보다 앞서 哥不愛가 거짓으로 上國의 복장을 지어 입고 여러 번 변경을 범하였는데 변민들은 오랜 뒤에야 그가 (상국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봄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자들이 있어 쫓아버렸습니다. 사람은 찾지 못했고 다만 그들이 버린 털옷과 비단으로 만든 관, 안장을 채운 말 등을 수

11)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6年(1219) (正月) 辛卯 王引見于大觀殿 (蒲里岱完等十人 : 인용자) 皆毛衣冠佩弓矢 直上殿 出懷中書 執王手授之

12)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12月) 翼日 詣闕 ... 蒙使毛衣冠佩弓劍 我朝贈紫羅衫束帶 令更衣 蒙使不從 只表着之.

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비단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오히려 의심스러워 縣官에 보 관하여 두었다가 大國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 (때를) 기다려 진위를 가리고자 하였습니다.”<sup>13)</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가 몽고군으로 변장한 금 반군의 정체를 파악하는 계기가 된 것은 그들이 버리고 간 비단으로 만든 관이었다. 당시 금 반군들은 종종 몽고의 복장을 하고 고려의 변경을 도둑질하였고, 고려 조정 역시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sup>14)</sup> 이들 금 반군은 털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 입고 몽고군인 척 행동하며 고려에 혼란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기고 간 물품들을 수습하던 중 비단으로 만든 관이 발견되자 고려는 이를 단서로 실제 몽고군이 아니라 몽고군으로 변장한 금 반군이 고려 변경에 소요를 일으켰음을 알아챘다는 것이다. 즉 고려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몽고군은 옷만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도 가죽으로 만들어 썼었고, 이러한 점을 당시 고려인들은 몽고군과 다른 주변 민족을 구분해주는 대표적 특징 중 하나였다고 이해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양국 간에 전쟁이 진행되던 동안, 고려가 몽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기록한 전리품 중에는 종종 가죽옷[裘]이 포함되어 있다.<sup>15)</sup> 이러한 기록 역시 당시 몽고인들이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짠 직물로 만든 옷을 주로 입었

13)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十二月 庚辰) 寄蒙使 上帝表曰 … 前此哥不愛偽作上國服 樣屢犯邊鄙 邊民久乃覺其非 今春 又值如此人等 方驅逐之 俄不見人物 唯拾所棄毛衣 帛冠鞍馬等事 以帛冠之故 雖知其偽 尙疑之 藏置縣官 將俟大國來人 辨其眞贗; 『東文選』 卷39 蒙古行李賚去上帝表(李奎報).

14) 다음의 기록에서도 금나라 반군들이 몽고의 의복을 입고 고려 변경 지역을 공격하였음이 잘 드러나 있다.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13年(1226) 春正月 丐哥下欲使其兵 變蒙古服 入寇義靜州 知兵馬事 李允誠 遣前別將金利生 · 大官丞白元鳳 率兵二百餘人 渡鴨綠江 深入彼境 攻破石城 斬宣撫副統等五人 獲牛馬兵器 不見丐哥下而還.

15) 『高麗史』 卷24 世家24 高宗 40年(1253) (八月) 癸丑 校尉大金就率牛峯別抄三十餘人 與蒙古兵戰于金郊 · 興義間 斬首數級 獲馬弓矢氈裘等物.

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흑달사략』에도 몽고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옷감은 주로 모직물과 가죽 등이었음이 언급되어 있다.

C. 복식. 오른쪽으로 여며 입으며 옷깃은 方形이다. 예전에는 모직물·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모시나 금선을 박은 (옷감으로 옷을 만든다.) 색은 홍색·자색·갈색·녹색을 사용하며 문양은 해·달·용·봉황을 사용하는데 귀천의 차등이 없다.<sup>16)</sup>

이는 몽고인들도 점차 모시나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언급한 기록이지만, 『흑달사략』의 저자들이 몽고를 방문했던 시점 이전에는 모직물과 가죽을 주로 사용하여 의복을 지어 입었던 점도 분명히 확인된다.

몽골의 전통 유목 제도와 관습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한 JAGCHID와 HYER에 따르면, 13세기 초 몽고 장수들의 중국의 화려한 옷감에 대한 반응은 경우에 따라 달랐던 것 같다. 칭기스칸은 위구르 군주가 항복하면서 바친 비단 등의 선물을 받아 들였지만, 금의中都(현 北京)를 점령한 Shigi-khutughu[失吉忽秃忽]는 금인들이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비단을 선물하자 이를 거부하였다.<sup>17)</sup> 또한 JAGCHID와 HYER는 칭기스칸의 가장 오랜 조력자 중 하나였던 보르추[Boorchu, Bo'orchu]가 칭기스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때에도 역시 갈색 모직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는 『秘史』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몽고 발흥 초기에는 중국의 비단이 아직 몽고인들에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sup>18)</sup>

고려인들은 국왕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몽고인들에게 비단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몽고인들이 생활해 온 몽골 고원은 견직물 생산을 위한

16) 『黑鞑事略』其服 右衽而方領 舊以氈毳革 新以紅絲金線 色用紅紫紺綠 紋以日月龍鳳 無貴賤等差.

17) *Secret History* qtd. in JAGCHID and HYER, 1979, *Mongolia's Culture and Society*, Westview, p.46.

18) JAGCHID and HYER, 1979, *ibid.*, p.48.

기본 재료인 뽕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환경이다. 또한 견직물은 극심한 추위와 잦은 이동 생활에는 맞지 않는 옷감이다. 몽고인들에게는 구하기 쉽고 또 쉽게 헤지지 않으면서도 가혹한 기후 환경을 나기에 적합한 털가죽으로 만든 옷이 훨씬 합리적이면서도 편리한 옷감이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의에 맞지 않는다면 갈아입을 것을 요구한 고려인들이 몽고인의 시각에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4. 몽고 사행을 동반한 婦女

몽고인들이 동반한 여성들에 대한 기록도 다수 남아있다.

- D-1. 고종 8년(1221) (8월) 기미. 몽고 사신 著古與 등 13인과 東眞 사람 8명이 婦女 1인과 함께 왔다.<sup>19)</sup>
- D-2. 고종 8년(1221) (9월) 계사. 몽고 사신 這可 등 23인이 婦女 1인과 함께 와서 국신물을 독촉하였다.<sup>20)</sup>
- D-3. 고종 18년(1231) (11월) 계사. 北界 分臺御史 閔曦가 돌아와 아뢰기를, “저와 兵馬判官 員外郎 崔桂年이 三軍의 지휘를 받아 몽고 병사들을 호케하러 갔을 때 한 원수가 權皇帝를 자칭하였는데 이름은 撒禮塔이라 하였고 錦繡로 꾸민 氈廬에 앉아 婦人을 좌우에 거느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sup>21)</sup>
- D-4. 고종 18년(1231) (12월). 몽고 사신이 왕에게 문서 한 통을 바쳤다. 그 문서에 이르기를, “... 그런데도 使臣이 데리고 간 1女에게는 投拜하지 않았다.”<sup>22)</sup>

19)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8年(1221) (八月) 己未 蒙古使著古與等十三人·東眞八人 并婦女一人來.

20)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8年(1221) (九月) 癸巳 蒙古使這可等二十三人 并婦女一人來 督國驛.

21)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十一月) 癸巳 北界分臺御史閔曦還奏 曦與兵馬判官員外郎崔桂年 承三軍指揮 往犒蒙兵 有一元帥 自稱權皇帝 名撒禮塔 坐氈廬 飾以錦繡 列婦人左右.

22)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十二月 蒙使獻王文牒一道 牒曰 … 使臣禾利一女根底不拜來.

이 문서는 난해한 문장으로 인해 당시 몽고식 문장투를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자에 따라 원문의 표점도 다소 다르고 국역도 차이가 있다. 특히 “使臣禾利一女”

위 기록에서 확인되듯이 고려를 방문한 몽고 사절단 중에는 婦女를 동반한 사례도 있었고, 고려를 공격하러 온 몽고 장수가 부인을 동행하였다고 표현된 경우도 있었다. 고려의 경우, 전쟁 혹은 외교적 방문에 부녀를 동반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고 사절이나 몽고 장수가 동반한 부녀가 특별히 기록에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1231년에 몽고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공격해 온 몽고 원수 살레탐의 사례에 대해서 고려는 그가 妻子를 동반한 것으로 기록하였다.<sup>23)</sup> 장성한 아들이 장병의 일원으로써 전투 지휘자인 아버지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장수의 부인까지 전장에 동행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료 D-4에 나타난 여성의 경우, 몽고는 고려가 이 여자에게 적절한 예를 행하지 않았음을 질타하며 고려를 공격하는 이유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사절단과 동행했던 이 여성이 다른 사신과 동등한 임무나 역할을 맡았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시 몽고가 이 여성에 대한 예우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며 고려를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만큼 몽고 내부에서는 상당한 지위나 임무를 부여받은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譯註 高麗史』(1965, 동아대학교)는 ‘사신이 데려간 여자’로 국역한 반면 『국역 고려사』(200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에서는 禾利一女를 사신의 이름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학자 亦鄰眞은 이를 ‘禾利歹(코르타이)’로 읽고, 강동성 전역 직후 고려에 파견된 蒲里倍完으로 보았으며(亦鄰眞, 1982, 『元代硬譯公牘文體』 『元史論叢』 1, 元史研究會, 中華書局, 178쪽 각주 1); 이개석, 2013,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99쪽 각주 117) 재인용), 이를 지지하는 국내 연구자들도 있다.

그러나 蒲里倍完이 고려를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몽고 측에서 전쟁 원인으로 꼽을 정도의 큰 갈등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譯註 高麗史』의 국역을 따라 禾利一女를 ‘사신이 데려간 여자’로 풀이하였다.

- 23)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十二月) 丁卯 遣人 遺唐古·迪巨及撒禮塔之子 銀各五斤·紵布十四·麤布二千匹·馬韉·馬纓等物.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十二月 庚辰) 遣將軍曹時著 以黃金十二斤八兩多般·金酒器重七斤·白銀二十九斤·多般銀酒食器重四百三十七斤·銀瓶一百十六口·紗羅錦繡衣十六·紫紗襖子二·銀鍍金腰帶二及紵布襦衣二千·獺皮七十五領·金飾鞍子具馬一匹·散馬一百五十四 遺撒禮塔 又以金四十九斤五兩·銀三百四十一斤·銀酒器重一千八十斤·銀瓶一百二十口·細紵布三百匹·獺皮一百六十四領·綾紗襦衣鞍馬等物 分贈妻子及麾下將佐十四官人.

이와 비교해 볼 만한 조선 후기의 기록이 있다. 18세기에 청을 방문한 조선 사행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당시 몽고의 왕이 사망하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몽고 여인이 전왕의 부인이자 신왕의 어머니의 자격으로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청에 조공 온 사실이 있다고 한다.<sup>24)</sup> 고려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왕의 대리인 자격으로 왕의 모친이 조공 사절로서 파견될 수 있었다는 점을 보면 그 이전에도 상위 지배 계층에 속한 몽고 여성들은 유사시 같은 계층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公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듯하다.

## 5. 몽고 사행의 외교 儀典

고려를 방문한 몽고 사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주목된다.

- E-1. 고종 6년(1219) 정월 경인. 哈眞이 蒲里俗完 등 10인을 보내 詔를 가져와 講和를 청하였다. … 포리대완 등이 館 밖에 이르러서는 시간을 끌며 들어가지 않고 말하기를, “국왕이 나와 맞이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譯者를 시켜 재삼 논박하니 말을 타고 館門에 들어섰다.<sup>25)</sup>
- E-2. 고종 6년(1219) (정월) 신묘. 왕이 (포리대완 등 10인을) 大觀殿에서 불러 보았다. (포리대완 등은) 모두 털로 된 옷과 관을 쓰고 활과 화살을 찬 채로 곧바로 전에 오르더니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어 왕의 손을 잡고 건네주었다. … (포리대완 등은) 전에 올라서도 私禮를 행

24) 崔德中, 『燕行錄』 「1713년 2월 5일」 夜四更 三使臣及一行某某人 又往暢春園 余亦隨陪 入處清梵寺 … 使臣退還寺所 寺中門外有二女 編髮垂耳下 一則坐毛方席 一則侍立 余怪而問之 則答云蒙古之女云矣.

金昌業, 『燕行日記』 「1713년 2월 5일」 外門內月廊塔上 蒙古女人三人坐焉 面皆廣觀 一蒙古王妻 二其侍女也 三女皆穿貂衣戴貂帽而着靴 編髮作兩條 前垂之 其主以黑繪裘焉 侍女或立或坐而主則坐於紅氈 終不動 余問其所以來 蒙古王死 而其子幼 不能朝 故其妻自來云.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1720년 正朝賀禮 路傍有女人乘朱輪過去者 頭戴紅氈笠 着黑衣 左右騎從及女隊合七八雙 使驛卒問之 云是蒙古王母 以其子年幼 不得入賀於正朝 故替來 今始還歸云. 이상, 박원길, 2010, 『조선과 몽골』, 소나무, 492쪽, 재인용.

25)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6年(1219) (正月) 庚寅 哈眞遣蒲里俗完等十人 賫詔來請講和 … 蒲里俗完等至館外 遲留不入曰 國王須出迎 於是 使譯者再三詰之 遂乘馬入館門.

하며 읍만 할 뿐 절하지 않았다.<sup>26)</sup>

- E-3. 고종 8년(1221) (8월) 갑자. 왕이 대관전에서 조서를 맞았다. 몽고와 동진 사행 21인이 모두 전위에 올라 명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上使 한 명만 전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의견을) 주고 받으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 著古與 등이 조서 전달을 마치고 전을 내려 가려 할 때 (몽고와 동진 사행들은) 각각 품안에서 물건을 꺼내어 왕 앞에 던졌는데, 모두 몇 년 전에 (그들에게) 선물한 麤紬布였다. 그리고는 연회에도 나오지 않았다.<sup>27)</sup>
- E-4. 고종 11년(1224) (정월). 몽고사신이 國驢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니 왕이 直門下省 馬希援에게 명하여 서경까지 전별하게 하였다. 몽고 사신은 압록강에 이르자 紬布 등의 물건은 버리고 다만 수달피만 가지고 가버렸다.<sup>28)</sup>

고려의 묘사에 따르면 몽고 사절은 고려 국왕이 직접 나와 자신들을, 혹은 그들이 전달하려는 元帥의 문서를 맞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십 명이 넘는 몽고 사행 일행이 모두 殿에 올라 고려 국왕을 알현하려 하기도 하였다. 국왕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무장을 풀지 않고 활과 화살을 소지한 채로 단 위로 올라갔으며, 몽고의 조서를 전달할 때에는 국서를 품에서 꺼내어 왕의 손을 잡고 그 손에 직접 문서를 쥐어 주었다. 고려가 선물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이를 왕 앞에 내던지거나 왕이 주최한 연회에 참석하지 않기도 하였으며, 혹은 국경을 벗어나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몽고 사절의 행동을 고려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에서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각을 달리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

26)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6年(1219) (正月) 辛卯 王引見于大觀殿 (蒲里俗完等十人 : 인용자) 皆毛衣冠佩弓矢直上殿 出懷中書 執 hands 授之 … (蒲里俗完等 : 인용자) 入殿行私禮 但揖而不拜.

27)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8年(1221) (八月) 甲子 王迎詔于大觀殿 蒙古·東真二十一人 皆欲上殿傳命 我國欲只許上价一人上殿 往復未決 … 著古與等傳旨訖 將下殿 各出懷中物 投王前 皆年前所與麤紬布也 遂不赴宴.

28)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11年(1224) (正月) 蒙古使齋國驢禮物還 王命直門下省馬希援 送于西京 使至鴨綠江 棄紬布等物 但持獾皮而去.

다고 생각된다. 당시 고려를 방문한 몽고 사신들에게 있어 그들이 전달을 명받은 몽고 장수의 문서는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다. 그들에게 문서를 맡긴 몽고 장수는 몽고 황제의 임명을 받아 전장에 파견되었고, 따라서 전장에서 는 황제의 대리인이었다. 이런 지위를 가진 장수가 맡긴 문서 전달 과업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몽고 사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임무였다. 이와 같은 외교 문서라면 고려인이나 몽고인 모두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대상이었을 것은 마찬가지이나, 그 실행 방법이 달랐다고 생각된다. 몽고인들은 그 문서를 자신에 품속에 보관하는 방법을 택했다. 문서를 품 안에 보관하여 늘 휴대하게 되면 불필요한 경비 비용이 없어지고 문서의 안전 여부를 언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몽고 사신의 문서 전달 방식도 이해될 수 있다. 고려 관원 들은 몽고 사신이 무장한 채로 왕에게 다가가 함부로 국왕의 손을 잡고 그 손에 직접 건네주는 형식으로 문서가 전달된 것에 큰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몽고 사신의 입장에서는 전달하는 문서가 중요한 만큼 문서 전달 경로를 최대한 단축하여 최종 수신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완수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10명이 넘는 대규모의 사절단 모두가 고려왕이 있는 단 위로 오르겠다는 주장 역시 국왕의 신변을 보호해야하는 고려가 보기에는 무례한 행동이었 겠지만 몽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칸의 대리자인 元帥의 문서를 안전하고 분 명하게 전달하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었으며, 그 들의 기준에서는 적절한 예의이자 처신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13세기 초 고려인이 관찰한 몽고의 풍습과 생활 양식을 정리해 보았다. 연회 자리에서 손님에게 고기를 접대하는 방식과 그들의 의복 문화, 외교 석상에서의 독특한 행동 양식, 사신 혹은 장수를 수행한 여성의 존재 등이 당시 고려인의 기록에 남았다. 대체적인 면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나 彭大雅 등의 『흑달사략』 등의 기록에 견주어 볼 때 크게 독특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 주목되지 않은 동시대 고

려인의 시각에 따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몽고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Ⅲ. 몽고에 대한 기록에 투영된 고려, 고려인

지금까지 고려측 자료에 나타난 몽고인과 그들의 풍습 관련 기록을 정리해 보았다. 고려는 몽고인들의 언행과 풍습을 기록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을 숨기지 않았다. 고려인들이 몽고의 방식을 불편하게 느꼈다는 점은 직접적인 폄칭 사례와 부정적 평가, 이질적 풍습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등과 같은 기록 속 여러 단서를 통해 확인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사료들은 모두 고려인들이 남긴 기록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기준으로 하여 낯선 집단인 몽고를 ‘비정상’으로 보는 고려인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고려인들의 기록 속에서 사실에 대한 관찰과 그에 대한 가치 평가를 분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려측 기록에 투영된 고려인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몽고와 다른 고려의 습속과 행동 양식을 확인하고, 고려가 몽고와의 차이를 수용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1219년 강동성 전역 전 날 열렸던 몽고의 연회에 대한 기록을 통해 고려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고려인들은 칼끝으로 고기를 찌어 먹거나 서로 먹여주는 일을 ‘몽고의 풍습’이라고 기록하였다. 즉 당연하게도 고려에는 칼로 고기를 찌어 먹는 습속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인들에게 있어 칼은 사물을 자르는 도구였을 뿐 음식을 섭취할 때 사용하는 식기의 일종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연회 석상에서 몽고인들은 칼을 고기를 집어 먹는 식기로 활용하였지만, 살상의 무기라는 칼의 본래 용도를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동석한 고려인들이 느꼈을 낯선 습속에 대한 이질감과 불편함, 그에서 연유한 불안감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종래 출토되어 온 고려시대 유물 중에는 현재의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형태와 크기가 유사한 수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사진 3·4 참조). 이를 통해서도 고려인들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주로 사용하던 도구는 숟가락과 젓가락이었음이 재차 확인된다.



[사진 3] 고려시대 수저(청주대 박물관 소장)



[사진 4] 고려시대 수저(대전 유성구 출토)

한편, 초기 교섭 단계의 기록에서는 몽고 사신들이 고려를 방문할 때 婦女를 동반한 기록이 종종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들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은 것이 몽고가 고려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평가되는 고려시대이지만 전쟁이나 외교 사행과 같은 조정의 임무에 여성이 동행하는 일은 쉽게 수용되지 않는 생경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외교 의전과 관련해서는 몽고와 고려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려는 외교 석상에서 몽고 사절이 착용한 의복 재질을 가장 먼저 지적하였다. 즉 고려식 예절에 따르면 왕을 알현하는 자리에 적합한 차림새는 털옷이 아니라 비단옷이어야 했다. 자국을 방문한 타국 사신에게 옷을 갈아입을 것을 요구하였을 만큼 외교 석상에서는 털가죽 옷을 입는 것이 고려식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왕을 만날 때 무기를 소지하는 것 역시 예의에 맞지 않은 일로 보았다는 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는 몽고 사신들의 복장에 대한 고려 조정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 F. 고종 8년(1221) (겨울 10월). 몽고 사신 喜速不花 등 7인이 왔다. 大觀殿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희속불화 등이 활과 화살을 차고 전 위에 오르려 하자 類會使가 말하였다. “두 나라가 화호하여 교류한 이래 모두 禮服(입고) 서로 만나보았는데, 하물며 이러한 무장은 연향과 같은 자리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sup>29)</sup>

고려와 몽고 사신간의 털옷을 둘러싼 갈등을 상기할 때, 위 사료에서 언급된 ‘예복’은 아마도 문양이나 장식 등이 예법에 맞는 복식이라기보다는

29) 『高麗史節要』卷15 高宗 8年(1221) 冬十月 蒙古使喜速不花等七人來 宴于大觀殿 喜速不花等佩弓矢 將上殿 類會使曰 自兩國交好以來 皆以禮服相見 況此武備 其如宴饗何 乃解而赴宴 『고려사』에는 喜速不花의 방문 일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高麗史』卷22 世家22 高宗 8年(1221) (冬十月) 乙卯 蒙古使喜速不花等七人來

‘예의를 갖춘 복장’ 정도의 의미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고려 유희사의 발언을 보면, 양국이 외교 석상에서는 ‘禮服’, 즉 예의를 갖춘 (비단으로 만든) 옷을 차려 입고 무장은 풀어야 하는 것이 고려의 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왕을 직접 만나는 사행의 수 역시 양국 간 주요한 의전 갈등의 하나였다. 몽고측은 사행단 전체가 국왕과 같은 석상에 있기를 요구했지만 고려는 경우에 따라 대표자 한 명, 혹은 몇 명만을 허락하였다. 고려의 경우에는 사행단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대표자 한 사람만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의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의전 갈등이 있었다. 고려인들은 몽고 사행이 국왕에게 인사하는 방식에 대해 ‘읍만 하고 절은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를 ‘私禮’로 규정하였다. 당시 몽고인들의 인사 예절에 대해 『흑달사략』은 ‘서로 안으며 읍하고 왼쪽을 꿇어 앉아 절한다(其禮 交抱以揖 左跪以爲拜)’라고 기록하였다. 『고려사』에 私禮라 표현되어 있는 것이 혹 왼쪽 무릎을 꿇는 몽고식 배례에 해당할 수도 있을 듯 한데 확인하기는 어렵다. 몽고 사신이 처음으로 공식 외교 문서를 가지고 고려를 방문하여 국왕의 직접 마중을 요구했을 때 고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 국왕이 도착 과정부터 외국 사행을 마중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몽고 사신들이 고려로부터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버리고 가거나 왕 앞에서 이를 던지는 것과 같이 불만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고려인들은 상당히 불만스럽게 기록하였다. 선물의 증여와 수수 방식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하겠다.<sup>30)</sup> 외교 문서를 품에 보관하는 것 역시 고려인의 기준에서는 비정상적인 일이었으며, 더구나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왕의 손을 함부로 잡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 중 하나였다.

30) 이러한 몽고 사절의 행동이 고려에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해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 근거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일단 양국이 선물의 증여와 수수 방식과 관련하여 서로의 방식에 불만을 가졌으며, 이를 두 문화 간의 차이로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처음 접하는 몽고인들의 행동에 대해 고려인들이 직접적으로 항의한 기록은 없지만, 아래의 사료는 몽고인들의 낮은 행동에 대한 고려인들의 불안과 불만을 단적으로 드러내어 준다.

G-1. 고종 6년(1219) (정월) 신묘. 왕이 (포리대완 등 10인을) 大觀殿에서 불러 보았다. (포리대완 등은) 모두 털로 된 옷과 관을 쓰고 활과 화살을 찬 채로 곧바로 전에 오르더니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어 왕의 손을 잡고 건네주었다. 왕이 이에 얼굴색이 변하였고 좌우의 신하들은 허둥거리며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侍臣 최선단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어찌 냄새나는 오랑캐로 하여금 지존에 가까이 가게 하였던 말인가. 荊軻의 변란이라 해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몽고 사신에게) 나가 줄 것을 청하였다.<sup>31)</sup>

무장도 풀지 않은 몽고 사절단에게 직접 손을 잡혔던 고려의 왕은 얼굴빛이 변했으며, 좌우의 신하들은 놀라서 우왕좌왕하였다. 신하 중 한 명은 눈물을 흘리면서 몽고 사신들을 ‘냄새나는 오랑캐[醜虜]’라고 부르고, 이들의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탄하였다.

최선단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듯이 몽고의 관습과 행동 양식을 매우 낮설게 여긴 13세기 전반기 고려인들은 이들을 지칭할 때 禽獸, 오랑캐 등과 같은 폄칭을 사용하거나,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남기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데, 다음의 사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G-2. 고종 5년(1218) 12월. 그러나 몽고는 夷狄 중 가장 흉악하고 사나우며 우리와는 예전부터 우호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sup>32)</sup>

31)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6年(1219) (正月) 辛卯 王引見于大觀殿 (蒲里岱完等十人 : 인용자) 皆毛衣冠佩弓矢直上殿 出懷中書 執王手授之 王乃變色 左右遑遽 莫敢近 侍臣崔先旦泣曰 豈可使醜虜近至尊耶 設有荊軻之變 必不及矣 遂請出.

32)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5年(1218) 12月 然蒙古於夷狄 最凶悍 且未嘗與我有舊好; 『東國李相國全集』 卷36 誄書 「金紫光祿大夫守大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上將軍修文殿大學士修國史判禮部事趙公誄書」.

- G-3. 岱州의 전역 때 몽고 원수는 본래 (성품이) 완악하기가 금수와 같은 자였고 또 승세를 뒀다고 자부하여 군중의 □□ 무리들을 보면 대부분 모두 문란하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이 이를 데가 없었다.<sup>33)</sup>
- G-4. 그 후 몽고국 사신 9인이 입조하였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짐승의 마음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가까이 하기를 꺼렸다.<sup>34)</sup>
- G-5. 고종 18년(1231) 9월. 누군가 산에 올라 소리 지르기를, “오랑캐 병사 [狄兵]가 이르렀다.”라고 하였다.<sup>35)</sup>
- G-6. 지금 저 먼 곳의 戒胡들이 우리의 경역을 침입하니 이리같은 탐욕이 더욱 심해지고 호랑이가 물어뜯는 것 같은 해독이 그치지를 않는다.<sup>36)</sup>
- G-7. 완악한 戒醜들로 하여금 발자취를 거두어 멀리 달아나 다시 우리 경역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sup>37)</sup>

위의 사료들은 몽고와의 교류 초기에 나타나는 몽고에 대한 고려 내부의 기록이다. 고려는 몽고를 夷狄, 戒胡 등으로 지칭하였으며 이들을 금수에 비유하여 성품이 거칠고 사납다고 하였다.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몽고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집단인데, 이들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고려는 어떻게 해서 이에 적응하거나 수용하기보다 먼저 무시하고 폄하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고려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고려인들은 건국 이후 거란과 여진, 송과 교류해 왔다. 이들과 달리 몽고는 고려가 기존에 알고 있던 외교 상대국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흥한 세력이다. 사료 G-2에서 고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고려는 몽

33) 『趙冲 墓誌銘』(1220, 고종 7) 及岱州之戰 □蒙古帥本頑如禽獸者 又乘勝自負 見軍中□□輩 率皆嫫狎 無所不至.

34) 『崔義 墓誌銘』(1223, 고종 10) 是後 蒙古國使九人入朝 人面獸心 人皆諱近.

35) 『高麗史節要』卷16 高宗 18年(1231) 9月 有人登山呼曰 狄兵至矣.

36) 『東國李相國全集』卷34 教書 麻制 官誥 「始興伯倂爲淮安公, 今者懼彼戎胡 侵吾封境 狼貪之欲滋甚 虎噬之毒無厭(1231, 고종 18).

37) 『東國李相國全集』卷19 雜著 「大藏刻板君臣祈告文 丁酉年(高宗 24, 1237)行, 使頑戎醜俗 斂蹤遠遁 無復蹈我封疆.

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매우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교류 초기에 고려가 그들의 문화와 습속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몽고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 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 사신 김양기가 금에 사행갔다가 피살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많은 수의 사행이 피살되었는데 이를 수습해 준 금에 따르면 이들을 살해한 것은 몽고 병사들이었다. 김양기 일행의 피살은 몽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단초를 열어주는 사건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아울러 김양기 피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몽고의 공격을 받고 있던 금으로부터 몽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역시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다음의 사료를 보자.

- H-1. 고종 3년(1216) (윤7월) 병술. 北界兵馬使가 아뢰었다. “金 東京總管府에서 聖旨를 받들어 이첩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 (부터) 韃靼(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흉악함을 믿고 (우리) 경성을 침입하였으나 이미 우리 군[大軍]과 몇 해 전 강화를 맺고 갔다.’”<sup>38)</sup>
- H-2. 고종 3년(1216) 겨울 11월 경인. 금이 이첩하여 말하였다. “韃靼 병사들이 大夫營을 공격해 와서는 틈을 타 성으로 들어왔으나 이미 모두 죽여 버렸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무리가 있어 고려[貴邦]로 도망쳐 들어갈까 염려되니 번거롭겠지만 청컨대 밝게 살펴 단단히 방비하여 몸을 숨겼다가 (적을) 격살하기 바란다.”<sup>39)</sup>

H-1 사료의 금 동경 총관부가 이첩한 문서는 그들이 몽고와 강화를 맺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몽고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흉악한 무리라는 점이다. 두 번째 문서에도 몽고는 강화

38)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3年(1216) (閏7月) 丙戌 北界兵馬使奏 金東京總管府 奉聖旨移牒 略曰 昔有韃靼 特兇入京 已與大軍 年前講好去訖.

39)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3年(1216) 冬十一月 庚寅 金移牒曰 韃靼兵來攻大夫營 乘間入城 然已盡殺 尙恐餘黨 逃入貴邦 煩請照會 堤防掩殺.

를 맺은 금을 역으로 공격하는 집단, 즉 금과 고려가 공동으로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듯 고려가 몽고와 직접 조우하기 이전에 몽고에 대한 기록은 고려의 자발적인 관찰이나 첩보 활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몽고의 공격을 받고 있던 금으로부터 유입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피해 당사자로부터 전달된 정보였으므로 금의 입장에서 볼 때 ‘가해자’였던 몽고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고려에 전달되어 수용되면서 몽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거란 遺種이나 哥不愛 세력과 같이 금에 반기를 든 세력들도 몽고 병으로 번복한 고려 변경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 점 역시 고려 내부에서 몽고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형제의 맹 이후 고려를 방문한 몽고 사행들은 고려와는 다른 양식의 예절에 따라 행동하였고, 고려인들이 이에 상당히 불만을 가졌다는 점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아울러 몽고인들은 客館에서도 이전에 고려를 방문했던 타국의 사행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몽고 사신들은 고려의 대접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소지하고 있던 활이나 몽둥이 등으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고려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sup>40)</sup>

이처럼 고려로서는 몽고의 실체를 미처 다 파악하기도 전에 그들에 대한 편향된 정보와 오해로 인한 부정적 인식만 강화되고 있었다. 급기야는 양국 간에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고려 조정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조차 자신을 공격해 오는 대상이 몽고인지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와 몽고 간에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몽고 원수 살레답은 고려에 자

40)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사료에서 확인된다.

『高麗史節要』卷15 高宗 8年(1221) (九月) 著古與等 怒館待不滿意 張弓持杖 或射或擊 館伴郎中崔珙等 奔走出門 卽下鎗 蒙使不得出 將軍金希礪 開門入諭 其怒稍解

『高麗史節要』卷15 高宗 8年(1221) (九月) 王以蒙人 谿壑其欲 凡所求索 與則財竭 否則鬻生 議未決 遣門下侍中李抗·司天監朴剛材 卜于大廟 這可等來 督國監 以金希礪 知詩禮 有膽略 善辭語 命爲類會使 這可等曰 前來 未聞安只女大王遣使而不迎接也 希礪曰 往歲 蒙大國恩 今又遣使 其迎逐之禮 與夫國職等事 敢不盡心 然君在都護府 手射一人 死生未可知 若生則君之福 死則君之一行 必見拘留 這可等 屈膝慚服 一從希礪處分.

신들이 몽고 군사라는 점을 알리며 투항을 권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인 포로가 다른 성에 이들이 가짜 몽고[假蒙古]라는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sup>41)</sup> 『고려사』에 따르면 몽고의 공격이 시작된 지 두 달 여 뒤에야 고려 조정은 고려를 공격해 온 이들이 몽고군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sup>42)</sup> 이와 같은 일련의 眞蒙古·假蒙古 논의를 볼 때에도, 몽고와의 초기 교섭 단계에서 고려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였으며 그나마 파악하고 있는 정보 역시 상당히 편향적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듯 13세기 초에 등장한 몽고는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교섭 국민 요, 송, 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거란족과 漢族, 여진족의 생활 방식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으나 고려인들은 이들 각각과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이들의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1200년대 들어 고려인들의 앞에 나타난 몽고라는 집단은 고려가 알아왔던 집단들과는 다른 점이 더 많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고려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즉 고려가 익숙히 알고 있던 기존의 세계 속에서는 몽고인들은 매우 낯선 대상이었다.

고려가 잘 알고 있던 생활 양식과는 다른 기준을 가진 새로운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인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13세기 초 몽고가 고려의 영역 주변에 등장했던 때는 고려가 세워지고 송 등 외부 세력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그에 따라 구성된 외교 질서에 적응한 지 300여 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그동안 고려가 익숙해 있던 세계관을

- 41) 『高麗史』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八月) 壬午 蒙古元帥撒禮塔 圍咸新鎮屠鐵州。  
『高麗史節要』卷16 高宗 18年(1231) (八月) 蒙古元帥撒禮塔 將兵圍咸新鎮曰 我是蒙古兵也 汝可速降 否則屠城無遺 副使全備懼 與防守將軍趙叔昌謀曰 若出降 城中之人 猶可免死 叔昌然之 遂以城降 … 叔昌爲書 諭朔州·宣德鎮 使迎降 蒙人令叔昌 所至先呼曰 眞蒙古也 宜速出降 至鐵州城下 令所虜瑞昌·郎將文大 呼諭州人曰 眞蒙古兵來矣 可速出降 文大乃呼曰 假蒙古也 且勿降 蒙人欲斬之 使更呼 復如前 遂斬之。
- 42) 『高麗史』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冬十月 癸丑 朔 蒙古二人持牒 至平州 州即囚之以聞 朝議紛紜 或云可殺 或云當問其由 乃遣殿中侍御史金孝印 往問 其牒云 我兵初至咸新鎮 迎降者皆不殺 汝國若不下 我終不返 降則當向東真去矣。  
『高麗史』卷23 世家23 高宗 18年(1231) (冬十月) 壬申 郎將池義深 押平州所囚蒙古二人 到京 一是蒙古人 一是女真人 自此 國家 始信蒙古兵也。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한 이들 몽고의 새로운 행동 양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자신이 발을 딛고 서있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그 세계에 속해 있지 않던 몽고를 수용하기 위해 고려는 그들을 기존 질서에 속해 있지 않았던 외부자, 즉 오랑캐로 규정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된다.

낯선 집단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사전적 단계에서 그들을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례는 고려 전기에도 있었다. 고려 초기에 사용된 거란에 대한 지칭 표현을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sup>43)</sup> 고려 초기의 군주들은 거란을 ‘禽獸의 나라’·‘強惡한 나라’·‘仇讎’ 등으로 지칭하였고 발해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는 ‘無道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런데 최승로는 그의 時務策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彼’·‘彼國’과 같은 중립적인 지칭 표현을 사용하다가도 고려 서북 경계의 방비를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는 부분에서는 이들을 ‘戎狄’이라 지칭하였다. 거란과 전쟁을 앞두고 있던 송의 사신이 고려를 방문하여 함께 거란을 공격할 것을 요청하자 고려 군주는 송의 적국인 거란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여 그들을 ‘외국’이라 지칭하며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듯 고려 초기에 거란에 대한 여러 범주의 지칭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은, 그들과의 실제 관계와 상관없이 대화상대자에게 거란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발화자의 의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양국 간에 일정한 형태의 외교 질서가 수립되기 이전 상황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고려 초기에는 정식 국교 수립 이전의 거란뿐 아니라 여진에 대해서도 ‘人面獸心’과 같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집단은 모두 고려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지 고려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sup>44)</sup> 고려 전기에 육로로 연결되는 외부 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43) 이하는 李美智, 2010, 「고려 초기 지칭 표현을 통해 본 對거란 관계」, 『史學研究』 99의 논지를 요약한 것이다.

44) 李美智, 2010, 앞의 글, 48쪽.

위해 의도적인 편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유의한다면, 13세기 초 등장한 또 다른 낯선 세력인 몽고에 대한 편칭 사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려 변경의 구체적인 실체로 몽고가 등장하였고, 실제로 금의 반군을 추격한다는 이유로 고려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군사 작전을 수행한 것을 목격한 고려인들은 그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몽고인에 대해 ‘오랑캐’류의 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몽고인들이 고려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은 1219년 강동성의 전역 때인데, 실제로 이 사건 이후의 기록에서는 몽고에 대한 고려인들의 부정적인 지칭과 묘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전 시기 몽고에 대한 편칭은 대부분 고려 외부에서 전달된 정보였다.

지금까지의 추론에 큰 오류가 없다면, 고려인들은 새로운 이웃으로 등장한 몽고로부터 느낀 낯섦, 이질성을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 이를 야만성으로 규정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는 몽고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적응 방식은 아니었다. 고려 초기 거란 및 여진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향후 고려의 안위에 실질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낯선 대상으로부터 느껴지는 이질성을 야만 혹은 오랑캐의 습성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고취한 뒤 그 생경함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과정은 육로로 연결되는 외부 집단에 대한 고려 왕조의 특징적인 대응 방식이었다고 하겠다. 그동안 익숙해 있던 거란·여진과는 또 달랐던 몽고인과 그들의 문화를 접하며 고려인이 느낀 낯섦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야만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의 초기 교섭 시기 고려 내부의 기록 속에는 몽고에 대한 편칭과 부정적인 시각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선형적인 평가절하에 근거한 편칭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여행기 속에서도 발견되는데, 몽고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고려시대의 그것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 이들 역시 몽고라는 낯선 상대들을 ‘禽獸’,<sup>45)</sup> ‘犬戎’<sup>46)</sup>으로 편칭하거나 그들의 습속에 대해 ‘獍悍’<sup>47)</sup>하다

거나 ‘醜惡’<sup>48)</sup>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는 내부적으로는 몽고를 오랑캐로 지칭하고 그들의 습속을 폄하하면서도, 그들과의 외교 교섭을 통해 전쟁을 종결짓고 화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는 몽고를 기꺼이 上國으로 인정하였다. 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고려가 몽고에 보낸 表文을 분석하여 고려의 對蒙 외교 자세를 설명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려는 이미 1219년 강동성의 전역 직후부터 몽고에 자발적으로 稱臣하였다. 책봉-피책봉 관계가 공식적으로 성립되기 전이지만 이미 강동성 전투에서 몽고의 군사력을 확인한 뒤였으므로 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이나 긴장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평화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후에도 몽고에 보내는 외교 문서에서는 고려가 몽고를 우위로 하는 외교 질서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몽고를 天·大邦·大國·上國·上朝 등으로 지칭하였다. 즉 고려는 몽고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는 몽고의 우위를 충분히 인정하여 전쟁 상황을 속히 극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sup>49)</sup>

지금까지 13세기 고려의 몽고에 대한 기록을 통해 고려인들이 인식한 고려와 몽고 습속의 차이를 추출해 보고, 고려인들이 이러한 차이를 선형적으로 ‘오랑캐’ 혹은 ‘금수’의 속성으로 규정하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 추론해 보았다. 고려인들은 낯선 집단인 몽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들에 대해 많은 폄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선 외부로부터 유입된 편향된 정보와 몽

45) 洪大容, 『湛軒燕記』 「蕃夷殊俗」 其蠢蠢去禽獸不遠也; 박원길, 2010, 『조선과 몽골』, 소나무, 402쪽 재인용.

46) 저자 미상, 『蕪山紀程』 1803년 12월 27일 蒙古館條 蒙人犬狔戎; 박원길, 위의 책, 405쪽 재인용.

47) 洪大容, 『湛軒燕記』 「蕃夷殊俗」 其以貢獻至者 獨以染黃皮毛爲帽 狀貌類多獐悍; 박원길, 위의 책, 402쪽 재인용; 朴趾源, 『熱河日記』 「盛京雜識」 1780년 7월 10일조 蒙古皆鼻高目深 淨擰鷲悍 殊不類人; 박원길, 위의 책, 415쪽 재인용.

48) 李岬, 『燕行記事』 「聞見雜記」 (蒙古) 皆悍惡醜健 … 其性之勁悍醜惡如此; 박원길, 위의 책, 404쪽 재인용; 朴思浩, 『心田稿』 「蒙古館記」 其人諸夷中尤悍醜無禮 面目可憎; 박원길, 위의 책, 406쪽 재인용.

49) 이상은 李美智, 2009, 「1231·1232년 對蒙 表文을 통해 본 고려의 몽고에 대한 외교적 대응」 『韓國史學報』 36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고에 대한 기본적 정보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초기 교섭 단계에서 일어났던 사신 피살 사건이나 의전 갈등, 전쟁과 같은 크고 작은 사건들도 부정적인 對蒙 인식이 형성되는데 일조했다고 하겠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초기 대몽 관계에서 확인되는 부정적인 묘사와 편칭은 고려가 자신의 영역 주변에 등장한 새로운 집단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점차 익숙해져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리라는 점을 고려 전기 對거란, 對여진과의 관계와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 IV. 결론

본고는 13세기 몽고에 대한 고려의 여러 기록을 일차적으로 몽고의 풍습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고, 또한 당시 고려인을 이해하는 자료로도 활용해 보고자 하였다. 고려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몽고인들은 氈廬라는 독특한 거처에 기거하였으며 전쟁이나 외교 사행과 같은 公的 여행에 婦女가 동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회에서는 날카로운 칼 끝을 이용하여 고기를 서로 먹여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타국의 군주를 알현하는 자리에서도 무장을 풀지 않았고, 털가죽으로 만든 의복을 선호하였다. 흔히 사신단의 正使가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 석상에서는 열 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신단 전체가 같은 대우를 요구하였다. 외교 문서 등을 보관할 때에는 별도의 상자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대신 자신의 품속에 직접 보관하였고, 이를 전달할 때에는 使命의 신속하고 정확한 완수를 위해 국왕의 손을 직접 잡기까지 하였다. 왕 앞에서 절을 생략하고 읍만 하기도 하고, 고려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왕 앞에서 내던지거나 왕이 베풀어준 연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몽고의 관습과 행동 양식을 매우 낮설게 여긴 13세기 전반기 고려인들은 이들을 지칭할 때 禽獸, 오랑캐 등과 같은 편칭을 사용하거나,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남기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고려가 볼 때 몽고라는 집단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새로운 세력인데, 이들의 문화에 대해 고려가 선협적으로 취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건국 이후 몽고와 조우하기 전까지 고려가 속해 있었던 ‘세계’를 재구성 해 보았다. 13세기 초 몽고가 등장했던 때는 고려가 세워지고 송, 거란, 여진 등과 적정한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그에 따라 구성된 외교적 질서에 적응한 지 300여 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고려인들로서는 자신이 받을 딴고 서있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그 세계에 속해 있지 않던 몽고를 수용하는 방법은 새 집단인 몽고를 기존 질서에 속해 있지 않았던 외부자, 즉 오랑캐로 보는 방법뿐이었다고 추정해 보았다.

이에 따라 몽고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고려인이 느낀 이질성은 야만의 속성으로 규정되었고, 따라서 양국의 초기 교섭 시기 고려 내부의 기록 속에는 몽고에 대한 폄칭과 부정적인 시각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렇듯 고려가 그 주변에 새롭게 등장한 몽고와 같은 외부 집단을 일단 오랑캐로 규정하여 그들의 이질성을 인정한 후 그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가는 방식은 전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고려의 특징적인 對外 적응 방식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全集』, 『益齋亂稿』, 『黑韃事略』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사 <http://db.history.or.kr/KOREA>
- 高柄翊, 1969,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1970,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원길, 2010, 『조선과 몽골』, 소나무  
윤용혁, 2011, 「대몽항쟁기 여몽 관계의 추이와 성격(1218~1270)」 『13~14세기 고려 - 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해안  
이개석, 2010, 「여몽형제맹약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 『대구사학』 101; 2013,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이개석, 2013,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李美智, 2010, 「고려 초기 지칭 표현을 통해 본 對거란 관계」 『史學研究』 99  
李美智, 2009, 「1231·1232년 對蒙 表文을 통해 본 고려의 몽고에 대한 외교적 대응」 『韓國史學報』 36  
李丙燾, 1961, 『韓國史』 中世篇, 乙酉文化社  
李益柱, 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丁善溶, 2002, 「趙沖의 對蒙交涉과 그 政治的 意味」, 『震檀學報』 93  
JAGCHID and HYER, 1979, *Mongolia's Culture and Society*, Westview

■ Abstract ■

Koryŏ Mirrored in the Mongols  
– A Review on the Early 13th Century Koryŏ Records on the Mongols –

Lee, Mi-ji

*“According to the Mongol custom, a host and his guests should enjoy being seated together, catching a piece of meat on the point of a sharp saber and feeding each other in the twinkling of an eye.”*

– *Koryŏsajŏryo* 15, in the 1st month of the 6th year of the King Kojong’s reign

This review has been ignited from this episode quoted above; it is an excerpt from the *Koryŏsajŏryo*(高麗史節要, *Essentials of Koryŏ History*). After reading this stunning account, I collected the records carrying the Koryŏ people’s observations on the newly acquainted Mongols. The Koryŏ people mainly noticed the differences in etiquettes in several occasions, and as a matter of cours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ongols and the Koryŏ were documented in an unfavourable voice. The 13th century Koryŏ people called the Mongols “savages” and described the Mongols as “beastly”, “barbaric”.

Having reading through the intriguing accounts I became curious why the Koryŏ people could have derogated, without reserve, the newly rising Mongol of that time. How did the contemporary Northeast Asians including the Koryŏ people view the Mongols who had just arrived in their border in the 13th century? On what basis did the Koryŏ people document what they had observed? This review on the records on the Mongols by the Koryŏ was an outcome of the process to find an answer to these questions.

Comparing the series of accounts on the Mongols with the course which the Koryŏ people had gone through while familiarizing themselves with the neigh-

boring Khitans in the 10th - 11th century I assume that the Koryŏ people feared any new neighbors who had happened to share the border with their dynasty since the new polity could possibly menace the Koryŏ through the land route any given time. Thus Koryŏ people's fear for the new polity on the border was expressed in derogation in Koryŏ documents.

For the question why the Koryŏ people designated the Mongols as barbarians I suggest that we should take the standpoint of the Koryŏ people of the early 13th century. They had lived within a certain world order of their own that had been maintained for almost 300 years since the Koryŏ dynasty had been established in the early 10th century. In order to preserve the world with which they had been acquainted the Koryŏ people first had to belittle the newcomers from outside of their 'world' and declared them as 'barbarians'. Then the Koryŏ could slowly take up the Mongol as a new partner who they had to deal with, and eventually they accepted the newly formed Mongol-centered world order. This process not only was applied to the relations with the Mongols but functioned as one of the typical diplomatic tactics of the Koryŏ.